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5월 2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2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4. 29. (금)	담당부서	전자전기과
담당과장	김종주 과장(044-203-4300)	담 당 자	방 규 철 사무관(044-203-4343) (010-5097-0384)

산업부, 울산에서 입체(3D)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'16. 5. 2.(월)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입체(3D)프린팅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, 울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입체(3D)프린팅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규제프리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,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.

< 간담회 개요 >

○ 일시 : '16.5.2(월) 11:30~13:00

○ 장소 : 울산과학기술원(UNIST)

○ 참석 : 산업부 제1차관, 울산시 경제부시장, 입체(3D)프린팅 기업·연구기관 및 주요 수요기업 등

□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울산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입체(3D)프린팅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,

○ 입지, 품질인증, 마케팅,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.

□ 이관섭 차관은 규제프리존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, 신산업 창출의 동력으로 정부는 재정, 세제, 입지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.

○ 또한, 입체(3D)프린팅의 성능 시험 및 품질 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,

○ 입체(3D)프린팅 기업과 자동차, 조선 등 수요기업이 협력하여 제조 공정을 혁신할 협업체계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, 울산지역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울산은 자동차, 조선 등입체(3D)프린팅을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춰 '15.12월 입체(3D)프린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바 있다.

○ 앞으로 『규제프리존특별법』이 제정되면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, 재정·입지·인력·세제 등 분야에서 입체(3D)프린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전자전기과 방규철 사무관(☎ 044-203-4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